

고센시 지정 천연기념물

주오 삼나무

위 치 고센시 나가하시

지정 날짜 1976년 2월 27일

이 삼나무는 수령이 900년 이상 되었다고 전해지며, 높이 35m, 줄기 둘레 6.9m로 하구로 신사의 신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보호받고 있다.

하구로 신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.

헤이안 시대(794~1185) 젠쿠넨노에키(1051년부터 1062년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)에서 겐지 에 의해 멸망한 아베 씨의 종신 구로토리 쇼에노리토는, 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슈(지금의 이와테현)에서 교토를 향해 에치고(지금의 니가타현)까지 군대를 진격시켰다.

당시 가나스게사와조(지금의 타가미마치 에 있던 성)의 성주였던 하뉴다 수오노 카미는 이 검은 새의 군대와 싸웠지만, 성을 함락당하고 도망치던 중 검은 새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다.

그러나 흑조군에게 잡혀있던 주오마사의 아내 아키시노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흑조군으로부터 주오마사의 목을 빼앗아 이곳으로 탈출한다.

그리고 그 목을 하구로 신사에 모시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.

그 후 수오노 카미를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은 하구로 신사 경내에 하치만구를 세우고 주오노카미의 목을 모셨다고 한다.

이 전설 때문에 이 삼나무는 '주오 삼나무'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.

2024년 10월 고سن시 월교육위원회